

# 설 명 자 료

(농림부)

- 제공일 : 2005. 10. 17.
- 제공자 : 농림부 식량정책과
- 과 장 : 오 경 태
- 사무관 : 최 명 철
- 전 화 : 500-1746, 1751

**제목 : 공공비축 포대벼, 산물벼 농가 희망대로 허용**

- 정부는 금년부터 종전에 시행하던 추곡수매제도가 WTO 보조금 감축으로 한계가 있고 DDA협상 이후에는 보조금을 추가로 감축해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
  - WTO협정상 허용보조로 인정되는 『공공비축제』를 도입하고 쌀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『쌀농가소득보전직불제』를 시행하는 등의 양정제도를 개편한 바 있음
- 공공비축제는 비축물량을 600만석(864천톤)으로 하고, 연간 매입물량을 300만석으로 하였으나
  - 올해는 공공비축제 시행의 첫해인 만큼 수확기 농가의 판로 확대를 위해 100만석을 추가하여 400만석(포대벼 250만석, 산물벼 150만석)을 매입하기로 하였음
- 공공비축 미곡의 매입가격은 포대벼의 경우 전국동일(단일)가격을 적용하되 조곡 40kg 포대당 47,350원을 우선 지급한 후 쌀값조사 결과에 따라 '06년 1월 정산하고
  - 산물매입은 미곡종합처리장(RPC)을 통하여 매입하되 RPC가 자체로 판단한 시장가격으로 매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

□ 현재, 전국적으로 벼 베기 실적은 52%수준이며, 공공비축 매입량은 91천석(계획량 400만석의 2.3%)으로 부진한 실정임

※ 벼베기 실적 : 강원 85%, 경기 65, 충청 40, 전라 60, 경상 40

※ RPC 매입실적 : 공공비축 매입 91천석(지난해 405천석),  
자체매입 1,470천석

□ 금년도 작황 수준과 예년의 벼 매입 실적 등 수급상황을 고려할 때 수확기 농가 출하물량 흡수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

○ 현장 상황은 새로운 제도인 공공비축제에 대한 적응력 부족으로 인한 혼란과 금년도 역 계절진폭의 영향으로 인한 불안 심리로 RPC가 매입가격 결정을 지연하거나 낮게 결정함으로써

○ 농업인과 마찰 등 수확기 물량 흡수가 원활하지 못하고

○ 10월10일 현재 산지쌀값도 지난해 가격대비 13.3%가 하락된 상태임

※ 쌀값추이 : ('04.10.10) 166,260원/정곡80kg → ('05.10.5) 146,676 → ('05.10.10) 144,144(전년 동기대비 ↓13.3%)

○ 이에 따라 농업인과 지자체 등에서는 산물벼도 포대벼와 같은 가격으로 매입해 주거나 산물벼를 포대벼로 전환하여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

- 따라서, 농림부는 우선적으로 공공비축 매입량 400만석 중 RPC를 통해 산물 벼로 매입키로 한 150만석에 대해서는 농가가 원하는 방식(산물벼 매입 또는 포대벼 매입)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전환매입을 허용하기로 했다.